



휘파람변형에 대한 수술법 및 문헌고찰

이종호, 신영민*, 서병무, 최진영, 정필훈, 김명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대부분의 구순열 봉합술은 구륵근의 배열을 수정해주시 못하며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근섬유들이 평행하게 배열된다. 구륵근에 있어 흔히 나타나는 2차적 변형으로 입술에 주름을 짓거나 휘파람을 불 때 입술에 변형을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난다. 구순구개열 환자에 있어서 1차 수술에서 구륵근의 주행을 맞추지 못한다면 1차 수술 후에 휘파람 변형은 흔히 양측성 구개열에 대한 수술이후에 나타나며 특히 환아의 전술이 짧은 경우 나타나게 된다.

1차수술기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휘파람변형이 나타나게 되며 이에 대한 교정법이 발전되어 왔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현재까지 행해진 휘파람 변형에 대한 2차적 교정법 및 각 기법에 대한 비교를 해 보는 바이다.

Whistling Deformity Correction and Journal Review- Our Experience

Jong-Ho Lee, Young-Min Shin*, Byoung-Moo Seo, Jin-Young Choi, Pill-Hoon Choung, Myoung-Jin Kim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cleft lip closures do not correct the alignment of the orbicularis oris muscle fibers, so that often vertically oriented fibers are sutured side to side. Then, the common secondary deformity in the orbicularis oris muscle show up diastasis allowing distortions in the lip during puckering and whistling. The whistling deformity occurs frequently after reconstruction of the bilateral cleft lip, especially when the patient's prolabium is small.

Despite of the advance in technique of primary closure, whistling deformity may appear and the correction of whistling deformity was advanced.

So we present techniques of secondary correction of the whistling deformity and comparisons of each techniques.